

근거기반간호 - 임상간호연구결과

간호대학 2곳 중 1곳 글로벌 건강교육 실시 '다문화간호' 및 '국제간호' 교과과정 개설

전국의 간호대학 2곳 중 1곳에서 '글로벌 건강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경숙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명예교수팀의 연구논문 '글로벌 건강교육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됐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6년 5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기준 학교 홈페이지에 교과과정표가 공개된 간호대학 201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98개(48.8%) 간호대학에서 '글로벌 건강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문화간호'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이 59개, '국제간호'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이

22개, 두 교과목을 모두 운영하는 대학이 17개였다. 98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38개), 전라도(19개), 충청도(15개), 경기도(14개), 강원도(7개), 서울(4개), 제주도(1개) 순이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면 각 권역별로 글로벌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간호대학의 비율은 4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건강교육은 이론과목으로 개설돼 있었으며, 교과목 명칭과 학점 등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간호' 교과목의 경우 '다문화와 건강'(40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문화의 이해'(36개), '다문화와 의료관광'(1개), '다문화와 복지'(1개) 순이었다. 다문화간호 교과목을 2개씩 운

영하고 있는 대학이 3곳이었다. 대부분 2학점(84.8%)이었고, 1학점(12.7%), 3학점(2.5%) 순이었다. 주로 1학년(40.5%)과 2학년(40.5%)을 대상으로 개설돼 있었다. '국제간호' 교과목의 경우 '국제간호 이해'(21개)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간호와 전문직 이슈'(10개), '국제간호와 의료보조'(4개), '다문화와 국제사회'(3개), '국제보건과 정책'(1개) 순이었다. 2학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69.2%, 1학점이 30.8%였다. 4학년(36.0%)을 대상으로 개설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2학년(28.2%), 3학년(17.9%), 1학년(17.9%) 순이었다. 연구팀은 "98개 대학에서 글로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간호가 지향하는 현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글로벌 건강교육을 위해선 이론 강의와 함께 현장학습, 해외연수 등 현장성 있는 교과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경기도간호사회 중소병원 순회교육

경기도간호사회(회장·김인자)는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을 올해 세 차례 실시했다.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 '상처간호 및 감염관리' 주제로 운전의료재단 메디힐스병원(10월 21일), '안전간호' 주제로 성안드레이병원(10월 24일), '응급상황 대처능력' 주제로 시화병원(10월 25일)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간호사들은 "임상의 실제 사례



를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돼 공감할 수 있었고,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 많아 만족스러웠다"면서 "앞으로 실무관련 강의와 간호 관련 법 등 다양한 주제의 순회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충북간호사회 합창단 공연 봉사활동

충북간호사회(회장·한명자)는 합창단 창립 2주년을 맞아 요양원 '섬김의 집'을 방문해 합창 공연 봉사활동을 11월 5일 실시했다. 충북간호사회 합창단은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관 교육장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연습모임을 갖고 있다. 올해 연말에도 요양시설을 방문해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명자 회장은 "바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연습하고 공연 봉사활동에 나선 단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합창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봉사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수가 '농촌지역의 자살에 대한 학적 이해' 주제로 강연했다. 보건진료소 우수사업 사례발표회가 진행됐으며, 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학술포스터가 발표됐다. 김순찬 회장은 "지역주민과 하나 돼 농어촌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충남보건진료소장회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보건진료소장회(회장·김순찬)는 제5회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나와 나의 작은 관심! 생명사랑의 시작입니다' 주제로 11월 8일 개최했다. 보건진료소장 242명과 시·군 대표 운영협의회장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허승욱 충남 정부부지사와 '고령화시대 보건진료소의 통합적 기능과 역할변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허승욱 정부부지사는 "충남 농어민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며 "노인자살 예방을 비롯한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



수강생이 500여명이 건강증진관을 다녀갔다. 특히 체험활동 중심의 보건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손세균 감사하기, 손 소독제 만들기, 금연다짐 나무 만들기, 나쁜 기억 지우개 등이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부산시간호사회 보건교사 간담회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보건교사 간담회를 10월 31일 개최했다. 황영숙 부산시보건교사회장과 보건교사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시간호사회 회장단이 함께 자리했다. 보건교사들의 현안과제와 교육현장에서 겪는 애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은 회장이 대한간호협회 정책 및 부산시간호사회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은 회장은 "다양한 분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권의를 옹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경북간호사회 간호봉사대장정 실시

경북간호사회(회장·윤난숙)가 제14회 간호봉사대장정을 10월 22일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실시했다. 경주시간호봉사단(단장·안규자 경주시간호사회장)이 주축이 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경주 지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윤난숙 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법이 수록된 홍보물도 배부했다. 윤난숙 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전남보건교사회 건강증진관 운영

전남보건교사회(회장·이정하)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건강 하나! 행복 둘! 건강증진관'을 10월 22~31일 운영했다. 전남보건교사회가 주관하고, 전남교육청(교육감·장만채)이 주최했다. 전남보건교사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건강증진관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보건 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성교육 및 정신건강, 일상생활건강, 청소년 급주·금연, 약물 오남용 등 4개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 8000여명,



일반관람객 5000여명이 건강증진관을 다녀갔다. 특히 체험활동 중심의 보건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손세균 감사하기, 손 소독제 만들기, 금연다짐 나무 만들기, 나쁜 기억 지우개 등이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서울시간호사회 간호윤리 세미나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간호윤리 세미나를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법적 이해와 대응방안' 주제로 11월 8일 개최했다. 주제강연을 한 백경희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보호자·동료직원 등에 의한 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 간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폭력 발생 시 내부위



원회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룹을 나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폭력 사례에 대해 법적·윤리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토론한 후 발표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회원 힐링나들이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김명)는 '힐링나들이' 행사를 10월 25일 가평 남이섬에서 개최했다. 회원 81명이 참가해 남이섬을 산책하며 심신을 재충전했다. 간호사들은 "시원한 가을바람을 쐬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돼 편안했다"고 말했다. 김명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보다 참가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제갈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병원간호사회 '입원간호서비스 개선활동' 경진대회

병원간호사회(회장·박영우)가 '입원간호서비스 개선활동 경진대회'를 10월 21일 개최했다.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킨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34편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8편이 발표됐으며, 시상했다. △최우수상= 암병원 병실문화(V.I.P 캠페인) 개선활동(세브란스병원·장현진) △우수상=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Safety Keeper 활동(삼성서울병원·단소영), 입원 환자를 위한 맞춤형 Care Map 개발을 통한 간호서비스 향상(서울대병원·심미선) △장려상= 중환자실 침상환자 관리체계 구축(강남세브란스병원·백숙희), 집중지



료실 욕창 유병률 감소활동(이주대병원·김미선), 새벽 체혈로 인한 불편감 해소를 통한 환자와 간호사 만족도 향상(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권순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맞춤형 의사소통 개선활동(인하대병원·이수진),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하는 동행간호(한림대한강성심병원·최경자). 이날 '의료기관에서의 특별한 환자 경험 만들기' 주제로 여상근 분당서울대병원 경영혁신팀장이 특강을 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게시판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전경자)는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간호교육 변화에 대한 요청: 지역사회간호교육의 새로운 시도' 주제로 12월 15일 오전 9시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간호교육과 간호자의 역할' '간호사 국가시험의 과제' 주제강연, '지역사회간호교육의 새로운 시도' 주제로 소규모연구회의 성과를 공유한다. 문의 041)570-2495.

한국기초간호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초간호학회(회장·이경숙)는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간호학 통합교육과 기초간호학 교육의 방향' 주제로 12월 10일 오전 9시20분 중앙대 103관 206호에서 개최한다. '간호학 통합교육의 사례와 발전방안' '통합의학교육 내 기초의학' '한국 및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에서의 기초간호학 현황' '기초간호학 현황' 등 주제발표, 논문초록 11월 30일까지 제출, 사전등록 12월 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ionursing.or.kr) 참조. 문의 seami@mokpo.ac.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28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개강 / 수시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7 연세대 RN-BSN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동영상 강의 진행중
RN-BSN·간호사 국가고사 전문 카페 '천사랑' http://cafe.naver.com/10rang04